

제41회 장애인의 날 장애 인식 개선

학부모님 안녕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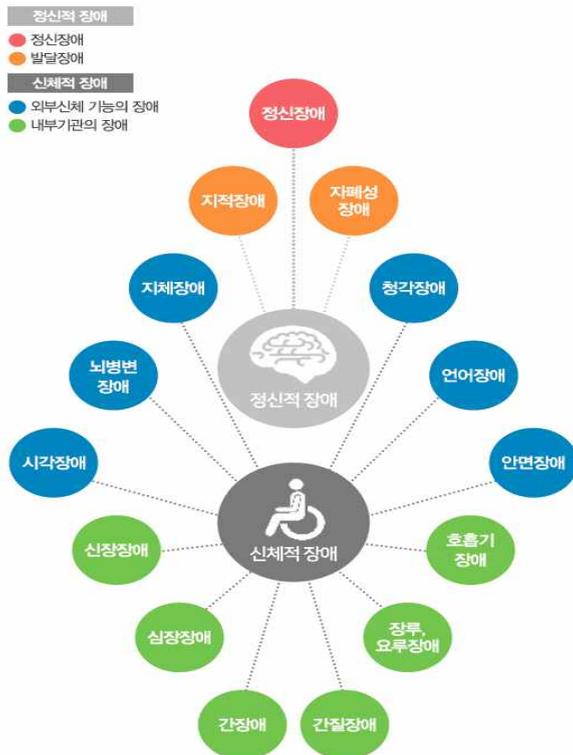
4월 20일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**장애인의 날**입니다. 학교는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곳이며, 가정은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키우는 곳입니다. 자녀들이 나와 다른 이들을 생각해보고 장애 학생들과 함께 많은 경험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많은 지도 바랍니다.

1. 장애인이란?

신체 일부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



장애인도 조금 다를 뿐
존중받아야 하는 존재



2. 알고 계세요?

대한민국 등록 장애인 수 250만명
미등록 장애인까지 포함하면 500만명

등록 장애인 수
250만명



미등록 장애인 수
250만명



적어도 7가구 중에 1가구는
장애인이 있습니다.



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90% 이상이
사고, 질환 등으로 인한
후천적 장애인이라는 사실



장애인에 대한 예절, 알아둡시다!



✓ 장애인을 만났을 때

-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와 같이 자연스럽게 대하고, 도움을 주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기



✓ 바른 언어 사용

- 장애가 있는 친구들을 부를 때 '장애인'이나 '도움반'이라는 명칭 대신 이름 불러주기



시각장애인을 만났을 때

시각장애인에게 길을 안내할 때, “여기”, “저기” 등 애매한 표현은 피하고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



시각장애인을 안내할 때에는 흰 지팡이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하고, 반보 앞에서 걷기



시각장애인을 의자에 앉게 할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



청각장애인은 입 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, 듣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지 않기



청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 조금 천천히 말하거나 문자로 소통하기



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

한자리에 오래 혼자 서 있거나 길을 헤매는 지적장애아가 있으면 다정하게 관심을 물어 보고, 이름표나 소지품에 적힌 연락처로 알려 안전하게 보호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



지적장애인과 대화를 나눌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말하고,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기



지적장애인을 만났을 때,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피하거나 놀리지 않기



휠체어 이용자 등 지체 장애인이 거리에서 곤란해 하는 경우를 보면, 도움 일이 없는지 먼저 묻기



길거리에서 휠체어나 목발 이용자를 만나면, 먼저 지나갈 수 있게 옆으로 비켜주기



지체장애인을 만났을 때

2021. 04. 16.



남원한빛중학교장 (판인생략)

※ 본교 홈페이지 <http://school.jbedu.kr/nwhb> 학부모자료/가정통신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